



독일 기업들의 선제적인 구조조정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유로존의 소비 감소와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둔화 여파로 독일 경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독일 기업들은 인력감축 및 비용절감 등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섬.

- 2/4분기 독일 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0.5%보다 0.2%p 하락한 0.3%에 그침.
 - 독일 IFO의 8월 기업신뢰지수는 전월대비 0.9p 하락한 102.3을 기록하여 201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
- 독일의 체감경기 선행지수들 역시 하락함으로써 하반기 독일 경제 둔화가 예상됨.
 - 6개월 기업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기업기대지수는 8월 현재 전월대비 1.3p 하락한 94.2를 기록
- 이와 같은 구조조정은 유럽 재정위기가 향후 수개월간 더 심화될 것이란 예상을 바탕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비한 비용 절감 및 경쟁력 회복이 목적임.

■ 전기·가스 등 유틸리티 산업은 경기둔화와 더불어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독일 정부가 8개 원전 폐쇄를 결정함으로써 비용절감이 더욱 요구됨.

- 독일 최대 전력회사인 Eon은 비용절감을 위해 전세계 직원 80,000명 중 11,000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함.
- 또 다른 전력회사 RWE는 유럽경기 둔화로 전력수요가 급감하고 상반기 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2,400명의 인원을 감축하였고 중기적으로는 자산매각과 8,000명의 추가 인원 감축을 계획함.

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을 통해 선제적 구조조정 효과가 증명되었기 때문에 일부 독일 기업들은 이번 경기 둔화를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인식함.

- 전례 없는 경쟁으로 핵심 사업의 경쟁력 확보가 절실해진 제약산업은 인력 감축과 조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에 돌입
 - Merck는 제네바 본사의 세로노 사업부를 폐쇄하고 500명을 해고하는 한편 750명을 다른 사업부로 전보 발령함.
- 온라인 판매 증가로 이익 감소 압박에 시달려온 우편주문업체들은 경기둔화로 더 큰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인력을 감축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에 주력하기로 함.
 - 우편주문업체인 Neckermann은 1,40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업체로 전환함.

■ 경기둔화의 여파로 이미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기업들은 인력 감축 또는 일자리 공유를 통해 가동률을 낮춰 손실 최소화를 모색하고 있음.

- 독일 최대 엔지니어링 업체인 Siemens는 산업자동화기기 등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위축되고 재생에너지 등에서 가격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인력구조 조정이 포함된 비용절감 계획을 마련
- 자동차부품업체 Bosch는 중국의 경기둔화로 매출에 타격을 받음에 따라 근로시간단축제를 도입하여 가동률을 낮춤기로 함.¹⁾
- 독일 철강기업인 Thyssen Krupp은 유럽 지역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했으며 장부가치 70억 유로에 달하는 미국과 브라질 철강공장 매각을 추진함.

(Financial Times, 8/26)

1)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업들이 해고 대신 선호하던 구조조정 방법임.